남해시대
THE NAMHAETIMES

남해 청년들의 `무모한 도전`은 계속된다

김희준 기자 | 승인 2021.12.31 10:16 | 호수 776

> 청년리빙랩 14개팀 활동 마감
> 오는 1월 14일까지 전시회

최우수상을 차지한 '주얼리남해' 팀, 남해 대표 특산물로 꾸러미를 제작해 홍보했다.

우수상 '아웃사이더' 팀, 남면 무지개마을에서 '처음 쓰는 꽃말사전'으로 세대간 소통을 시도했다.

우수상 '청춘어람' 팀, 고령인들의 인터넷과 모바일 접근성을 높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장려상 'MAMA' 팀, 남해 농산물을 이용한 디저트 레시피를 개발해 지역 주민과 나누며 화합하고자 했다.

장려상 '로컬커뮤니티마을공식' 팀, 체험마을과 밀키트 마켓을 꾸렸다.

장려상 '에코잉남해' 팀, 섬호마을 주민들과 기후위기 교육, 환경정화를 함께 했다.

청년 주도로 남해군의 사회 변화를 모색한 2021 남해군청년리빙랩 `무모한도전` 프로젝트가 막을 내렸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14개 팀은 올해 초부터 기후, 환경, 관광, 노인복지 등 다양한 주제로 지난 1년간 남해 곳곳을 누비며 활동해 왔으며, 지난 15일에는 활동의 결과를 가지고 성과공유회를 열어 프로젝트를 마무리했다. 이들의 활동 성과는 남해청년센터 `바라` 쇼룸에서 1월 14일까지 전시된다. 남해를 발로 뛴 14개의 팀은 다음과 같다.

△MAMA, 마을주민들과 함께한 남해특산물을 활용한 디저트 개발과 나눔 △에코잉 섬호 프로젝트, 마을 주민 동참한 기후위기 교육과 환경정화 △로컬커뮤니티 마을공식, 체험마을과 함께 밀키트 마켓 진행 △바이바이닐, 비닐없는 어시장 장보기와 가방 제작 △남해대교 친구들, 남해대교 매력북 제작 △보물섬TV, 남해군 방문의 해 홍보 영상 제작 △남해, 앤, 버려지는 패각류를 활용한 소품 제작 △주얼리 남해, 남해 대표 특산물로 구성된 꾸러미 △부케가르니, 남해전통시장의 재료를 이용한 레시피 △청춘어람, 노인 스마트폰 교육 △이웃사이더, 무지개마을 어르신들에게 꽃과 함께 촬영한 사진 증정 △늘본가, 토촌마을 산책지도와 엽서 제작 △남해집사, 남해 농산물 활용한 친환경 프리마켓 △회복적 마을공동체 연구회팀, 회복적 정의를 통해 대화모임과 공동체 지원.

최우수상을 수상한 `주얼리남해`팀 대표 지미정 씨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큰 보람을 느꼈다."라고 소감을 밝혔고, 장려상을 차지한 MAMA팀 김해란 대표는 "무모한도전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알게됐고 남해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본지를 통해 귀촌인 인터뷰에 응한 적이 있으며, 고현면새마을부녀회와 화방남해노인통합지원센터, 아동복지센터 등과 연계, 나눔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화합을 도모했다. 오는 1월에는 리빙랩에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남해 특산물 디저트 공방을 열 계획이라고 한다.

저작권자 © 남해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희준 기자